

# 公演藝術에 관한 經濟的 考察

## — 産業組織論 側面에서 —

田 馨\*

### 目 次

- I. 序 論
- II. 公演藝術의 經濟的 特性
- III. 公演藝術에 대한 需要
- IV. 公演藝術産業의 構造, 行動 및 成果
- V. 公演藝術産業의 財政的 沈滯性
- VI. 結 論

## I. 序 論

過去 好況을 누리왔던 美國의 오페라團들이 이제는 經營赤字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世界 主要 오페라團, 발레團, 그리고 연극단체들이 財政的 압박이나 經營上의 어려움으로 도산하고 있다. 이는 公演 준비 費用은 해마다 부쩍 늘어가는데 觀客들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1983年경우 北美 89個 오페라團의 45%가 赤字를 記錄해서 그전해 보다 赤字團體가 4% 늘어났다.<sup>1)</sup>

最近에 接어들면서 經濟學은 過去와는 달리 經濟的 量的 成長 問題에서 삶에 대한 質的 問題에 대하여 關心을 두기 始作하면서 傳統的인 明示的 市場去來에 관한 領域에서 크게 벗어나 擴大되어 왔다.<sup>2)</sup> 財産權, 法人 및 기타 機關, 政府와 政治, 教育, 家族, 罪와 罰, 私生活, 人類學,

\* 本 研究所 研究員, 商經大 經濟學科 副教授

註 1) 朝鮮日報, 1984, 11, 23..

2) 例를 들어 G. Becker,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Univ. of Chicago, 1976, J. Hirshleifer, "The expanding Domain of Economics," *AER*, Dec, 1985: Supple. 75, pp. 53~68., G. Stigler, "Economics The Imperial Scienc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No. 3, 1984, pp. 301~13., G. Radnitzky and p. Bernholz, *Economic Imperialism: The Economic Approach Applied outside the Field of Economics*, New York: Paragon House, 1986등을 들 수 있다.

歷史, 情報, 人種과 性差別, 심지어는 動物의 行態, 法, 나아가 公演藝術에의 關心이나 研究가 高潮되고 있다.

韓國은 60年代 初半부터 이룩해 온 産業成長의 결과 現在 GNP規模에서는 世界 15位, 國際 交易量 規模에서는 世界 12位로 부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成功的인 올림픽 개최는 文化的인 側面에서도 韓國의 位置를 國際社會에서 뚜렷하게 부각시켜 놓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韓國의 文化藝術 活動水準은 經濟的 規模와는 크게 괴리되어 있다고 評價되고 있다. 韓國의 文化藝術 活動은 현재 大部分 政府支援下에 이루어지고 아직 民間 公演藝術團體나 企業의 公演藝術에 대한 支援은 거의 미미한 實情下에 있어<sup>3)</sup> 經濟力 擴大와는 달리 落後되어 있다는 指適을 받고 있다.

藝術에 관한 定義나 藝術의 범주에 관하여 전부 言及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겠으나 여기에 서 論議하고자 하는 公演藝術에 대하여서는 比較的 쉽게 말할 수 있다. 公演藝術이라고 할때 우리는 음악, 연극, 오페라, 발레등 무대에서 직접적으로 觀客이나 청중을 對象으로 公演하는 藝術分野로 생각할 수 있다.

公演藝術産業은 서비스部門의 다른 産業과는 區分되는 特徵을 지니고 있으며 公演藝術團體는 藝術分野라는 特殊性下에서 藝術作品을 製作 公演하는 企業으로 이들 團體는 永久的인 商業性을 띤 團體가 있는가 하면 非營利性을 띤 團體도 있어 이들 團體의 經濟的 行爲는 다른 企業과 區分된다.

本 研究에서는 公演藝術産業이 갖는 特徵과 問題點을 産業組織論的側面에서 考察하고자 한다. 本 序論에 이은 第2章에서는 公演藝術産業의 經濟的 特性을 需要·供給側面에서 考察하였으며 第3章에서는 産業組織論的 側面에서 公演藝術産業의 構造, 行動, 및 成果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며 第4章에서는 公演藝術團體가 直面하게 되는 財政的 침체성을 說明하였다. 끝으로 第5章에서는 本 研究의 內容을 要約 收錄하였다.

現在 우리나라의 公演藝術團體中 大規模 교향악단, 발레, 오페라團등은 大部分 國家 또는 市에 의하여 運營되고 있으며 순수한 民間團體는 營利의 目的에서 보다는 순수한 藝術的 次元에서 運營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극의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民間團體가 활발한 活動을 보이고 있으나 이 역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註3) 한국문화예술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78년에서 80년사이에 기업들의 文化에 대한 투자는 4件 2천 8백만 원에 불과했으나 88년에는 28件에 12억 1천 4백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關係된 資料의 不足이나 制限은 研究 過程에서의 具體的인 模型의 設定에 다른 實證的 分析을 어렵게 하였으며 여기에서는 除外되었음을 미리 밝혀 둔다.

## II. 公演藝術의 經濟的 特性

公演藝術은 序論에서 밝힌 바와 같이 藝術作品의 創造的 또는 再創造的 提示等を 통한 公演者의 直接的인 勞動活動을 통한 무대에서의 實演이나 연주를 통한 觀客 또는 청중과 公演者의 同時 存在性이 強調된다. 물론 作家나 作曲家 또는 作品을 무대에 올리기까지의 여러 關係된 사람들의 勞動은 直接的으로 觀客에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公演藝術의 主要 特徵은 觀客의 直接的 認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藝術分野에 포함되는 技術的 要素도 매우 重要하다. 이 技術은 타고난 能力, 才力, 經驗, 훈련 그리고 無形의 質的 要素들이 包含된다.

먼저 이러한 公演藝術의 供給 特徵을 볼 때 觀客과 公演者의 直接的인 무대 實演을 통하지 않는 分野는 除外될 수 있으며 따라서 通常 영화, 라디오, 또는 TV等은 除外된다. 創造的인 藝術作品에 局限시킬 때 一般的으로 스포츠, 그리고 高度의 技術이나 훈련 또는 經驗을 要求하지 않는 大衆音樂, 大衆性을 띤 무용, 아마추어 公演등은 除外된다.

需要特性은 生産特性보다 그 定義가 容易하지 않는데 이는 相異한 消費者에 關係된 代替的인 패턴의 광범위한 差異에 連유된다.

一般的으로 消費者의 問題는 消費者의 選好나 기호에 따른 그의 時間과 資源의 最適配分問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公演藝術은 消費者의 時間과 所得에 따른 다른 欲望과 競爭關係를 맺게 된다. 물론 어떤 財貨와 用役은 密接한 對替關係가 있으면 매우 競爭的인 된다. 그러나 公演藝術에 대한 需要로써 局限시킬 때 代替關係를 明白히 하기란 容易하지가 않다. 사람에 따라서는 오페라가 교향악단의 연주와 代替關係를 맺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음악 애호가들의 경우 管絃樂곡 레코드가 오페라 實演과 代替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젊은 層에 있어서는 固定된 形式의 古典音樂과 自由스러운 大衆音樂과, 古典무용과 現代무용間에도 密接한 代替性을 發見할 수도 있겠으나 어느 한 分野만을 選好하는 경우 代替關係를 設定하기란 쉽지 않게 된다.

이제 公演藝術이 갖는 特徵을 生産物, 投入物과 費用, 收入源, 目的等으로 나누어 詳述하고자 한다.

i) 生産物

第1次産業이나 第2次産業인 製造業경우에 있어서 그 産業의 生産物은 쉽게 區分되거나 파악이 容易하지만 第3次産業에 포함되는 공연예술産業의 生産物 計測은 약간의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 公演團體에 의하여 生産된 서비스를 量的으로 識別함에 어느 주어진 期間에 걸쳐 生産物을 測定함에 있어서 몇가지 對替의인 概念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例를 들어

- (1) 公演回數
- (2) 판매가능한 입장권의 枚數(公演回數×공연장의 客席數)
- (3) 相異한 公演物의 製作回數
- (4) 實際로 판매된 입장권의 數 즉 有料 입장객의 數 또는 無料, 초대권을 所有하고 입장한 總입장객의 數

이러한 代替의인 概念下에서 볼때 첫번째의 公演回數는 公演團體에 의하여 使用된 可變投入物의 水準 즉 배우, 연주자, 또는 무대 종사자들의 勞動과 직접적인 關係를 맺고 있다. 즉 어떤 하나의 공연물에 있어서 公演回數가 증가하게 되면 이에따라 勞動 및 기타 서비스의 量은 증가한다. 그러나 公演藝術의 生産物이 本質의인 要素인 관객이나 청중과 밀접한 關係를 맺을 때 관객이나 청중이 거의 없다고 한다면 生産物은 產出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같은 경우는 物的生産 産業에 있어서 어떤 한 財貨에 있어서 그 財貨의 수요가 거의 없는 경우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公演藝術産業은 物的産業과는 달리 公演物 自體를 저장할 수 없다는데 그 特徵이 있다 하겠다.

두번째 경우는 주어진 期間中 可用 客석에 대한 판매가능數로 公演團體에 의하여 製作 또는 公演되는 作品의 總可用 供給量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 경우는 公演團體의 長期的 側面에서의 生産 活動에 관한 하나의 指標를 제공한다 하겠다. 한 시즌 또는 1년에 相異한 作品을 몇번씩 공연하는 연극단체를 例로 든다면 이 단체는 같은 期間에 걸쳐 단지 한 作品만을 제작 公演하는 경우보다는 보다 많은 產出物을 生産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測定方法은 서로 다른 성격의 공연단체와 比較될 수 없는데 例로 교향악단의 경우 每 公演마다 새로운 作品을 공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產出物은 過大評價가 될 수 있다.

네번째 경우는 경제적인 面에서 볼때 가장 合理的인 것으로 實際로 판매된 입장권數가 市場占有에 따른 供給量을 測定하는데 有用하기 때문이다.

ii) 投入物과 費用

다른 企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公演藝術產業의 投入物은 作品을 公演하는데 있어 이 단계에 의하여 購入된 또는 고용된 財貨와 用役으로 나타나며 이는 크게 資本과 勞動으로 大別할 수 있다. 그러나 公演藝術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勞動이 주요한 生産要素라는 점이다. 이 점이 資本이 重要視되는 일반적인 物的產業과 크게 區分된다.

公演藝術에 있어서는 最少한 5가지 범주의 勞動이 직접적으로 고용된다.

i) 公演勞動 즉 배우, 무용가, 연주가등

ii) 藝術家的 勞動 즉 제작연출가, 안무가등

iii) 創造的 勞動 즉 作家, 作曲家, 무대장치 및 의상 디자이너(designer)

iv) 技術的 스태프(staff) 즉 전기기사, 무대보조원, 무대장치자등

v) 行政的 스태프 즉 경리, 회계, 司書, 섭외, 홍보, 공연장의 안내원 등을 들 수 있다.

만일 이들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이들의 노동은 組合의 形成 有無에 따라 상당한 差異를 나타나게 되며 自然히 그들의 소득이나 公演條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다른 産業分野와는 달리 이들 예술가의 勞動은 1次的으로 그들의 금전적인 보수보다는 公演藝術에 참여하고 있다는 心理的 보수가 더 높게 評價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sup>4)</sup>

資本資源도 여러가지 面에서 고찰될 수 있다. 資本的 資產은 公演團體가 직접 所有하고 있거나 또는 賃貸하고 있는 公演場이나 이의 부속시설 形態로 存在하게 된다. 이와 함께 公演團體는 公演에 필요한 조명기기, 무대장치, 악기, 음향장치, 의상등의 資本財를 보유하거나 또는 임대할 수가 있다. 어느 意味에서 이와같은 固定資本財는 長期的으로 利用함으로써 一聯의 서비스를 낳으며 時間의 흐름에 따라 마모되고 결국에 가서는 폐품화 되거나 代替되게 된다. 물론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이지만 악기와 같은 장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資產的 價値가 上昇되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反面에 財政的인 面에서 볼때 公演團體에 의하여 使用된 資本은 投資와 運營資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公演物에 관한 研究를 體系化함에 있어서 하나의 作品을 公演하는데 使用되는 資本資源은 投資支出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支出費用은 연출자에 대한 費用, 연습시간,

註4) 財政的 利得만을 目的으로 神으로 부터 받은 才能을 팔아버리는 藝術人의 行動은 資本主義의 가장 큰 罪惡이라고 J. M. Keynes는 *Art and the State*, 1936. 에서 밝히고 있다. C.D. Throsby and G. A. Withers, *The Economics of the Performing Arts*, London: Edward Arnold(Publishers)Ltd., 1979, p. 9. 에서 재인용하였음.

9) 저작권 使用料, 무대장치나 의상준비에 따른 物質 및 勞動費用등을 들 수 있다. 公演이 始作된 후 每日每日 所要되는 費用은 公演期間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流動資本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公演藝術團體는 一定한 耐久年數(어떤 作品의 公演期間)를 갖는 資本裝備(주어진 作品)을 購入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資本裝備는 一定한 유지보수비(流動資本)를 必要로 하며 公演이 끝나는 경우 그 殘價는 거의 零에 接近한다고 할 수 있다. 作品이 公演되는 기간 資本은 一定한 收入을 納게되며 이는 最初 投資分에 대한 收益率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産業 特히 製造業의 資本에 대한 收益率과 比較될 수 있으며 이 收益率은 다른 産業의 收益率보다 높아질때도 낮아질 때도 있다.

이와같은 資本構造에 관한 기술은 經濟的 觀點에서 파악된 것이며 公演團體의 會計上 이와 같은 費用의 識別은 어려운 것이 一般的이다. 資産과 負債, 소득과 支出 明細書는 一般行政費와 特定 公演物의 公演等 間의 勞動의 配分을 나타내기는 힘든 일이다.

### iii) 收 入

公演藝術産業內의 公演團體는 다른 産業의 企業과 마찬가지로 收入을 획득한다. 入場客으로부터 받아들인 收入은 영리단체의 경우 그들의 主要 收入을 形成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 단체에 있어서는 公演으로부터 發生되는 收入만으로는 단체를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分野에 따라 다르지만 政府나 公共團體, 企業이나 기타 個人들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特히 公演藝術産業에 대한 公的 및 私的 補助金の 영향은 또 다른 經濟的 問題를 提供해 주고 있다.<sup>6)</sup>

### iv) 公演團體의 目的

公演藝術을 遂行하는 단체는 그 분야에 따라 多様하나 商業的 目的은 利潤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公演團體는 市場經濟의 여타 企業의 目的과 一致된다 하겠다. 따라서 公演物의 質이나 入場料, 公演回數에 대한 決定은 豫想 收益性의 原則이 適用된다.

어떤 形態든간에 補助金を 받는 公演團體는 어느 程度 相異한 動機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公演物의 質의 問題가 무엇보다도 重要視되며 잠재적 收益性은 副次的인 것으로 생각될

註5) 보스턴 교향악단의 예를 든다면 1시간 연주에 보통 4시간의 연습시간이 필요하며, 과거 70년간 여기에는 기술적 진보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Harvard Business School, *The Boston Symphony Orchestra*, 1975, p. 3.

註6) 費用·便益分析에 의한 公演團體에 대한 公共支援의 正當性を 論한 論文으로는 J. H. Gapinski, *The Economics of Performing Shakespeare*, *AER*, June, 1984, pp.458~66.,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問題點 즉 厚生損失, 疑似需要, 便益의 分配面이 간과되었다는 指摘은 E. G. West, *The Economics of Performing Shakespeare: Comment*, *AER*, Dec, 1985. pp. 1206~1209에서 代表的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수 있다. 음악회의 프로그램이나, 연극, 오페라, 발레등의 作品 선택은 藝術的 價値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바로크 음악만을 재창조하는 비엔나의 *Concentus Musicus*나 새로운 희곡만을 공연하는 런던의 *Royal Court Theatre*등이 그 代表的인 例로 들 수 있다.<sup>7)</sup> 우리나라에서도 國立劇場의 경우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一年에 서너 차례 新入作家의 作品이나 商業的 價値가 별로 없는 作品의 公演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비영리공연예술단체의 두번째 主要 目的은 公演을 통한 예술애호가나 同好人의 저변 확대에 있다. 藝術家들은 대부분 그들의 藝術家的 使命을 갖고 있으며 藝術自體가 本質的으로 바람직하며 社會的으로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며 藝術을 理解하는 層이 많을수록 그 自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許多하다.

때때로 청중이나 觀衆의 質에 重要性을 부여하고 있으며 오늘날 時代物이나 政治的 內容을 담은 作品의 경우 민중이나 학생層의 인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고전 발레단의 경우는 外國의 경우 一部 부유한 권력층의 환호를 기대하기로 한다.

물론 강조해야할 점은 이러한 目的이 公演物의 量이나 質의 面에서 財政的 結果를 完全히 무시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점이다. 財政的 압박없이 그들의 藝術的 價値나 理想을 追求할 수 있는 團體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公演藝術의 現實的인 모습은 質的制的에 따른 어떤 주어진 期間에 걸쳐 觀客數를 極大化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現實的으로는 實現可能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收入源을 통한 總收入이 最大限 總支出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公演藝術團體에 대한 經濟的 模型을 定式化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公演藝術團體主의 效用函數를 다음과 같이 假定하면 즉,

$$U=U(Q, W)$$

여기서 Q는 每期當 有料入場客數

W는 質的變數로 測定可能한 것으로 假定하고 레파토리, 作品水準等으로 表示될 수 있으며 따라서 效用은 生産物에 대한 하나의 函數로 表現될 수 있다.

註7) C. D. Throsby and G. A. Withers, op. cit. p. 14.

註8) 이는 C. D. Throsby, 의 *Production and Cost Relationships in the Supply of Performing Arts services*, in K. A. Tucker(ed.), *Economics of the Australian Service Sector*, London: Croom-Helm, 1977. pp. 414~432. 의 內容을 정리한 것이다.

公演藝術團體는 다음의 費用조건下에서 上記式의 極大化 問題로 가정할 수 있다.

$$AR_b + AR_g \geq AC$$

여기서  $AR_b$ : 公演에 따른 平均 收入額

$AR_g$ : 公演에 따른 其他 平均收入으로 기부금이나 보조금

$AC$ : 每公演的 平均總費用

이러한 基本的인 設定下에서 볼때 公演團體의 一般的인 決定問題는 生産函數와 費用函數 그리고 公演物에 대한 需要函數를 推定함으로서 解決될 수 있다.

#### a) 生産函數

公演藝術産業에 있어서 한 團體의 生産函數가 갖는 屬性은 公演回數에 依存한다는 점이다. 最短期 즉 1회로 끝나는 公演에서는 모든 生産要素의 利用水準은 固定된다. 그렇지만 生産物이 販賣된 티켓數로 測定될때 生産은 여러가지 要因 즉 入場料(價格), 날씨, 광고, 反應 즉 作品에 대한 批評等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要因은 이 團體의 生産函數로 表現되지 않고 需要函數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生産函數는 入場客數가 한 名도 없을 때에서 만원 일때에 따라 달라지며 횡축에 수직으로 表示된다고 할 수 있다. 可變要素의 投入을 調節함으로서 生産水準을 增減시킬수는 없게 된다. 이 상황아래서 平均生産力은 수직으로 나타나며 限界生産力은 無限이 될 것이다.

公演産業에서 短期라 하면 한 作品의 公演期間으로 定義될 수 있다. 오페라의 경우 한 作品은 3, 4일에 걸쳐 公演되며 연극은 경우에 따라 1, 2個月 그 公演이 지속되기도 한다.<sup>9)</sup> 한편 독주회나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한 地域에 局限할 때 1회 내지 2회가 一般的이다. 따라서 무대 장치, 의상, 연습, 준비기간과 같은 要素들은 短期에 있어 固定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들은 傳統的으로 한 作品의 製作費用으로 되어 있다.

短期에 있어서 可變要素는 每 公演에서 나타나는 物的 및 이에 聯關된 서비스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公演回數에 直接的으로 聯關되며 有料入場客數에 따라 달리 評價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特定 公演物의 公演回數는 可變要素의 投入으로 直接的으로 測定함으로

註9) 우리나라의 경우 「神의 아그네스」는 8個月에 걸쳐 342회나 지속된 경우도 있다. 每日經濟新聞, 1986. 7. 29.



서 評價할 수 있다. 따라서 短期 生産函數는 다음과 같이 表示될 수 있다. 公演期間中 公演內容은 固定된 것으로 간주하면

$$Q=f(P)$$

여기서 Q는 公演中 總有料入場客數

P는 公演回數

어느 特定 作品의 公演回數가 늘어남에 따라 入場客數는 줄어들게 되며 결국 수확체감의 法則이 作用된다 할 수 있다.

長期라 함은 公演團體가 製作하는 作品의 數가 달라질 수 있는 期間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期間中 公演場所의 收容能力도 달라질 수 있다. 즉 기존 시설의 확장이나 作品에 따라 相異한 公演場所를 利用하거나 또는 휴양지등의 地理的 特性을 고려하거나 消費者의 一時的 需要에 따라 달라진다. 이 경우 長期는 대개 1年을 갖고 이야기할 때 한 시즌에 상연되는 一聯의 作品을 이야기 할 수 있다. 外國의 有名한 오페라團 例로 메트로포리탄 오페라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有料入場者數로 生産物을 定義할때 生産物은 作品數, 한 作品의 公演回數, 公演場所의 크기, 그리고 作品의 內容等の 函數로 表現될 수 있다. 즉

$$Q=f(p, m, k, w)$$

여기서 m은 시즌中 公演되는 作品數, k는 公演場所의 크기, p, w는 앞서의 表記와 같다.

여기에서 p는 本質的으로 可變勞動投入物로 생각할 수 있으며 m은 資本서비스의 흐름을 測定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最長期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한 단체가 數年 또는 數십년에 걸쳐 존속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같은 期間에 있어서는 生産技術이 하나의 變數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公演藝術에 있어서 技術이라는 點은 이 團體의 長期的 成長이나 존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다. 이 보다는 變化되는 消費者의 기호나 經濟的 變動에의 적응력이 重要한 要因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公演物에 대한 期間으로 살펴볼때 資本이 固定되고 勞動이 可變인 短期인 경우

에는 수확체감의 法則이 作用되는 生産函數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長期에 있어서는 例로 콥·더그라스 生産函數形態가 公演作品數와 每作品의 公演期間의 同時的 擴大에 따른 規模에 대한 報酬와 代替可能性에 관한 測定으로 利用될 수 있다.

b) 費用函數

投入物 價格을 함께 생각할 때 위에서 假定한 生産函數는 費用函數를 내포하게 된다. 例를 들어 最短期에 있어서 단 한명이 入場한 경우에도 公演이 行하여 진다고 할때 公演物의 첫번째 單位의 限界費用은 그 작품이 무대화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 費用의 集計에 해당된다. 公演物의 그 다음 單位의 限界費用은 零이 된다. 따라서 產出物 水準에 關係없이 總費用은 公演期日에 걸쳐 一定하게 된다.

公演回數가 어떤 주어진 作品에 대하여 可變的인 短期에 있어서 무대화시킨 固定費用은 公演回數를 延長함에 따른 可變費用에 比하여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平均總費用은 낮은 產出物 水準에서 급속히 右下向 기울기를 나타낼 可能性이 높다.

長期에 있어서는 生産函數로 부터 直接 費用函數를 導出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이는 要素 價格이 不變이라는 假定을 유지하거나 時間의 흐름에 따라 均衡狀態에 있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代身하여 總費用을 產出物과 質的變數에 따라 直接 規定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TC=f(Q, W)$$

여기서 TC는 長期에 걸친 總費用

이 函數는 보다 効率的인 시설의 利用, 勞動고용의 合理化, 大規模購買에 따른 經濟性等을 通하여 企業에 利用可能한 實質的이고 金錢的인 規模의 經濟性を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效果를 明白히 區分짓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며 經驗的인 測定 역시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어느 한 企業의 時系列 資料로 부터 推計된다면 위의 費用函數는 企業의 規模의 成長을 通하여 達成된 規模의 經濟性を 나타내겠지만 이러한 效果는 要素 特히 勞動의 實質費用의 上昇으로 모호해 질 수가 있다. 이에 比하여 횡단面 資料가 利用될 수 있으나 이엔 다시 相反된 힘이 作用될지 모른다. 全體的으로 볼때 公演場所의 規模의 증대가 公演 藝術에 있어서 單位費用의 체감을 가져오는 가장 큰 要因이 될 것이다.

c) 需要 및 收入 函數

다음에 公演藝術에 대한 需要를 詳細히 다루겠으나 여기서는 단지 企業이 直面한 수요함수의 단순한 表現에 局限하고자 한다.

短期와 長期에 있어서 企業이 直面한 需要函數는 本質적으로 期間中 平均入場料金과 質的 變數로 表示되는 總有料入場客數로 測定되는 需要量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타 需要의 變化를 주는 要因으로는 廣告, 언론매체의 비평, 觀客의 特性, 식당, 카페, 交通, 주차장등의 聯關시설의 利用可能性等を 들 수 있다. 後者를 무시한다면 企業이 當面하는 決定函數는

$$Q=(p, w)$$

여기서  $p$ 는 平均入場料

이 需要函數의 推定은 產出物의 函數로 總收入을 推計함으로서 구할 수 있다. 長期에 있어서는 客석數의 變化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空間 利用率이 보다 적절한 從屬變數가 될 수 있다.

### Ⅲ. 公演藝術에 대한 需要

觀衆이 없는 公演藝術이란 생각할 수 없으며 公演產業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部分은 觀客에 있다. 公演 藝術家들은 觀衆의 호응과 박수를 기대하며 公演團體가 그들의 作品을 계속 무대에 올리기 위하여서는 觀客으로 부터의 收入이 要求된다.

이 章에서는 公演藝術에 대한 消費者의 需要에 대한 經濟的 面을 高찰하고자 한다.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經濟的 조건은 變化되며 所得水準은 向上되며 物價는 變動된다. 새로운 藝術的 또는 오락성 文化的 써비스가 나타나며 낡은 것은 사라지게 된다.

短期에 있어서는 단지 어떤 藝術에 대한 消費者의 行動은 이러한 變化에 영향을 받게 된다. 기존의 많은 애호가등이 그들의 습관을 바꾸고 무대를 찾는 일을 중지할 때도 생기게 된다. 이와함께 새로운 소비자등이 藝術을 즐기게 되며 기존 觀客들도 더욱 더 열심히 무대를 찾게 되기도 한다.

公演藝術이 숙련된 藝術家의 무대實演에 따른 觀客의 需要가 그 特徵일때 公演藝術을 즐기게 되는 觀客의 類型이나 規模를 決定짓는 經濟的 決定要因은 먼저 一般의인 人口의 規模와

그 人口學的 構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公演藝術參加率은 直接的으로 人口와 觀覽回數에 比例될 것이다. 더우기 人口學的 要素가 크게 作用되는데 藝術에 대한 기호는 一般的으로 後天的으로 습득되기 때문에 人口의 年齡分布나 性別 구조 등이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sup>10)</sup> 靑少年층이 높은 比率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 藝術性이 짙은 作品에 대한 需要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例를들어 연극에 대한 需要層이 20代의 젊은 女性으로 主를 이루고 있다고 할때 作品自體는 이러한 層을 對象으로 製作될 수 밖에 없으며 壯年層의 男子를 對象으로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最近의 一部 演劇 作品에 40代 主부가 물리는 現象등이 이를 잘 反映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보다 경제적인 需要에 局限시킨다고 할때 公演藝術에 대한 消費者의 需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消費者의 다른 活動에 대한 公演物의 價格과<sup>11)</sup> 所得이 가장 큰 要因이라 할 수 있다.

入場料金이 觀客에게는 第1次的인 重要性을 지니고 있으나 다른 需要도 매우 重要하다. 例를 들어 入場料가 下落하는 경우에도 公演場에 도달하는 費用이나 다른 代替物의 價格이 下落하는 경우에는 그 效果는 半減된다고 할 수 있다.

代替物의 有無가 補完物보다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技術의 發展은 無聲영화에서 토키, 천연색영화로, 흑백TV에서 칼라TV로, 라디오, 스테레오, 레코드나 카세트, VCR等의 製品을 發明하고 또한 보트놀이나 여행 또는 스포츠等の 여가 活動에도 영향을 준다. 더우기 技術開發이나 革新이 여러가지 여가활동등의 製品이나 活動을 可能케하여 줄 뿐만 아니라 長期에 걸쳐 이들 製品의 生産의 效率性을 제고하여 一般的인 公演藝術에 대한 入場料에 比하여 이들 製品의 價格을 低下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相對價格의 變化가 公演藝術에 參與하는 觀客에 대한 영향은 매우 重要하다. 實際에 있어서 公演藝術의 特性은 다른 産業의 경우보다 더 制限的인 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藝術審美眼이 그 自體 後天的으로 얻어지는 技術이며 따라서 演劇요금에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을때 演劇을 감상할줄 아는 能力이 없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 分野로의 轉換이 不可能하며 만일 相對價格이 오른 경우에는 演劇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간단히 그들의

註 10) A. Weinstein, "Transitivity of Preference: A Comparison among Age Group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March/April, 1968. p. 311.

註 11) 여기서 주목할 것은 公演物의 價格(入場料)와 이에 關聯된 부수가격(교통비, 주차비, 식사費等)과 競爭的 活動 中 外食費, 영화, 도서비, 스포츠, 여행비等 오락 기타 文化的 支出費와는 區分해야 된다.

예술 선호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一般的이다.

물론 이와같은 制限的인 反應 現象은 過大 評價되어서는 안된다. 그 理由로는 첫째 이는 기존 製品이나 활동에 대한 價格變化에 따른 反應이라는 점이다. 消費者의 여가 時間에 대한 잠재적 競爭關係가 될 수 있는 새로운 製品이나 서비스 소개된다고 했을 때 이는 價格變化의 問題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相對的으로 藝術 價格의 지속적인 등귀는 일부 사람들의 藝術作品的 理解 노력을 抑制하여 長期에 걸쳐 觀客數의 減少를 招來시킬 수가 있다.

셋째로는 價格變動에 따른 反應은 경우에 따라서는 즉 公演藝術에 대한 相當한 기호를 지니고 있으나 價格등귀에 대하여서는 相當한 制約을 받는 層이 있다고 하면 이 反應效果는 相當히 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現象은 制限的인 要素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教育水準은 所得과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相對的으로 저렴한 入場料의 主要 影響은 젊은 學生層을 誘導하고 吸收하는 것이다.<sup>12)</sup>

學生料金에 관한 위의 內容은 藝術團體에 있어서 料金構造의 重要性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例에 지나지 않는다. 후원자로 부터의 도움을 상실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最大限의 收入을 얻기 위하여서는 잠재적 觀客層에 대한 部分的 그룹화가 필요하다. 時間에 따라 즉 주야에 따라, 좌석에 따라, 또는 作品의 人氣度에 따라 料金은 相異한 것이 一般的이다.

要約해 볼 때 公演藝術에 대한 需要는 相對的으로 價格變化에 대하여 크게 敏感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長期的으로는 影響을 받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ii) 所得과 여가의 役割

一般的으로 公演藝術과 觀客의 教育程度 및 所得과는 正의 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正規 또는 非正規 教育을 통하여 公演藝術이나 藝術作品에 대한 감상이나 理解에 必要한 能力이나 批判力은 向上되게 되며 恒常所得水準의 向上은 이러한 習得能力을 可能케 하여 준다.

藝術에 대한 知的기호는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習得되기 때문에 恒常所得이라는 點이 強調된다. 즉 一時的인 所得의 增加는 藝術作品에 대한 參與行動에 그리 크게 影響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關係는 所得變화와 마찬가지로 價格變化에 대한 參與反應에 대하여서도 重要性을

註 12) A. Hilton, The Economics of the Theatre, *Lloyds Bank Review*, July, 1971, p. 31.

지닌다. 만일 藝術作品에 대한 關心도가 高所得層에 관계된다고 하면 藝術分野에 대한 支出은 總所得에 적은 比重을 차지할 것이며 價格變化에 比較的 덜 敏感할 것이다. 따라서 經濟가 發展됨에 따라 所得이 增加하고 教育水準이 向上하게 된다면 藝術과 所得間의 聯關性은 同時에 藝術에 대한 선호도를 增加시킬 것이며 따라서 長期에 있어서는 所得영향력이 價格영향력보다 크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만일 所得水準의 向上이 公平한 所得分配의 實現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할때 위의 예술과 所得間의 密接性에 대한 否定的인 見解도 있다.<sup>13)</sup> J. Robinson에 의하면 보다 均等한 所得分配은 公演藝術에 대한 私的 需要를 줄이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유층의 예술에 대한 私的 지원도 줄이게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精確한 所得再分配 形態에 依存하게 된다. 만일 所得分配가 最上流層에서 中産層으로의 移轉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나아가 貧民層으로의 滴水效果<sup>14)</sup>가 일어나게 되면 藝術分野의 잠재적 觀客은 增大된다고 期待할 수 있다.

所得再分配의 變化에 따른 問題를 別途로 하고 社會全體의 所得增大에 따른 役割을 考察하면 一般적으로 이는 教育水準의 向上을 通하여 所得增大와 여가시간의 증대는 藝術에 대한 消費를 增加시킨다. 즉 所得水準의 향상과 勞動時間의 감소로 보다 많은 資源과 時間이 文化的 目的에 利用될 수가 있다. 一般적으로 長期에 있어서 서비스産業이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높아지고 있다는 事實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2次產品의 價格이 低下되고 그것이 차지하는 比重이 적어진다고 할때 서비스産業에 대한 支出이 增大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발, 의상점과 같이 所得彈力性이 적은 서비스활동은 經濟發展으로부터 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藝術産業도 이와 비슷한 不利益을 가질수 있는데 이는 公演藝術에 대한 消費者의 支出은 全消費支出의 一部일 뿐만 아니라 消費者의 時間을 함께 同時에 要求하고 있기 때문이다. 消費者의 여가시간은 賃金에 대한 機會費用이며 따라서 公演藝術場所에 대한 直接的인 參與로 부터 再生藝術作品(TV, 레코드, 영화, 도서) 등으로의 轉位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같은 見解는 Staffan Linder의 「풍요의 모순」으로 잘 表現되고 있다. 그는 “우리는 항상 經濟的 풍요에서 오는 結果의 하나로 조용하고 調和있는 生活을 期待한다. 그러

註13) J. Robinson,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A Belated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69, p. 632.

註14) H. Chenery, etc., *Redistribution with Growth*, London: Oxford Univ. Press, 1974, Chap. II.

나 나타난 結果는 正反對이다. 걸음걸이는 보다 빨라지고 實際의 우리 생활은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sup>15)</sup>

公演藝術은 이와같은 정신없는 생활方法의 희생자이며 相對的으로 勞動—時間 集約的인 特殊性으로 直接參與에서 오는 즐거움을 提高시키지 못하고 消費時間이나 기호의 變化를 계속 要求한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最近에 삶의 質에 대한 認識이 增大되는 傾向이 있다. 이 環境의 變化는 기호의 變化를 가져오며<sup>16)</sup> 따라서 公演藝術에 대한 展望을 밝게 하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所得의 增大는 藝術에 直接的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教育을 通하여 즉 教育의 量的 質의 팽창은 藝術에 대한 기호를 가져오며 여가시간의 가격 上昇에 따른 문제를 상쇄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反面 現代 生活의 制限된 時間의 問題는 藝術에 대한 기호의 變化를 가져 올지도 모른다. 藝術에 대한 審美眼은 대단한 인내와 훈련, 集中 그리고 지대한 관심을 要求하며 따라서 現代의 복잡한 삶은 이러한 努力을 싫어하게 되어 藝術에는 接近을 멀리하게 한다. 오늘날의 文化는 우리의 삶에 非集中的이고 산만한 行動으로 유도한다.<sup>17)</sup>

藝術에 대한 教育의 展望도 美國의 例에서 본다면 그리 좋게 作用되고 있지는 못하다. 所得 및 教育水準에서 볼때 公演藝術에 대한 人口에 대한 入場客數를 본다면 美國의 경우 이는 西獨, 오스트리아, 더 나아가 헝가리, 체코, 東獨에 比해서도 훨씬 적은 水準에 있다.<sup>18)</sup>

이와같은 相反된 見解에서 우리는 단지 삶의 質에 보다 重點을 두게되는 社會에서는 궁극적으로 公演藝術에 대한 需要가 增大될 수 있다는 點을 기대할 수 있다.

### iii) 所得, 時間 및 公演藝術에 대한 需要<sup>19)</sup>

이제 所得이 向上됨에 따라 消費者의 消費活動에 관한 選擇問題와 그 效果를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經濟發展이 藝術에 대한 需要의 增大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定式化하는데 이다. 먼저 몇가지 假定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1) 消費活動을 두 部門 즉 藝術( $Z_1$ )과 기타 消費( $Z_2$ )로 나눈다.

註 15) S. B. Linder, *The Harried Leisure Clas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0, p. 1.

註 16) J. V. Krutilla, "Conservation Reconsidered",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67, p. 786.

註 17) Erich Fromm, *The Art of Loving*, New York: Harper & Row, 1963, p. 92.

註 18) T. Scitovsky, *Arts in the Affluent Society: What's Wrong with the Arts Is What's Wrong with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2, pp. 1~19.

註 19) 이에 자세한 內容은 C. Sharp, *The Economics of Time*, Oxford: Martin Robertson & Co. Ltd., 1981., G. Becker,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Sept., 1965, pp. 32~47등을 참조할 것.

- (2) 消費者는 商品과 時間을 結合함으로써 消費活動을 한다.
- (3) 每 消費活動은 固定比率下에 하나의 商品과 時間을 使用한다.
- (4) 每 活動에 割當된 時間의 限界價値는 賃金率과 同一하다.

이러한 假定下에 每 活動에 대한 完全價格(full price)  $\pi_i$ 는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pi_i = p_i b_i + w t_i, \quad i = 1, 2$$

여기서  $p_i$ 는  $i$ 活動에 대한 商品價格,  $w$ 는 賃金率,  $b_i, t_i$ 는 活動에 대한 商品과 時間係數  
 個人의 效用 極大化 問題는 라그랑제 函數로 表現될 수 있다.

$$L = u(z_1, z_2) + \lambda(Y + wT - \pi_1 z_1 - \pi_2 z_2)$$

여기서  $Y$ 와  $T$ 는 非賃金所得과 時間의 初期 賦存量

最大 效用을 얻기 위한 第1次條件은 上記 函數를  $z_1, z_2, \lambda$ 에 관하여 편미분한 후 零으로 함으  
 로서 얻을 수 있다. 이를 行列式으로 表記하면

$$\begin{bmatrix} u_{11} & u_{12} & -\pi_1 \\ u_{21} & u_{22} & -\pi_2 \\ -\pi_1 & -\pi_2 & 0 \end{bmatrix} \begin{bmatrix} dz_1 \\ dz_2 \\ d\lambda \end{bmatrix} = \begin{bmatrix} \lambda d\pi_1 \\ \lambda d\pi_2 \\ -dF + z_1 d\pi_1 + z_2 d\pi_2 \end{bmatrix}$$

여기서  $u_{ij}$ 는 效用函數의 交叉導函數이며  $F = Y + wT$ 로 完全所得(full income).

$\pi_i$ 과  $F$ 의 定義에서

$$d\pi_1 = b_1 dp_1 + p_1 db_1 + t_1 dw + w dt_1$$

$$d\pi_2 = b_2 dp_2 + p_2 db_2 + t_2 dw + w dt_2$$

$$dF = dY + w dT + T dw$$

比較靜態 屬性을 얻기 위해 上記式을 利用하여 代替效果를 살펴보면

$$S_{i,w} = \lambda t_i (\alpha_i / \alpha_j - 1) G$$



여기서  $S_{i,w}$ 는 效用不變下의  $w$ 에 관한  $z$ 의 偏導函數,  $\alpha_i$ 는  $w_i/\pi_i$ 로 時間 集約度 指數,  $G$ 는

$$G=(U_{ii}\pi_i/\pi_i-2U_{ii}+U_{jj}\pi_j/\pi_j)^{-1}$$

2次條件으로서  $\lambda, t_i, \alpha_i \geq 0, G \leq 0$  이므로  $\alpha_i > \alpha_j$ 에 대하여  $S_{i,w} \leq 0$ 이 된다. 따라서 만일 藝術이 다른 消費보다 時間集約的이라면 이는  $\alpha_i > \alpha_j, S_{i,w} \leq 0$  임을 意味하며 藝術消費에 있어서 代替效果는 非正의 값을 갖는다.

이는 消費는 貨幣(商品)뿐만 아니라 時間을 要求하기 때문에 賃金上昇의 代替效果는 消費를 보다 時間集約的인 活動으로 부터 멀리 하게 한다. 따라서 公演藝術이 相對的으로 時間集約的인 活動이므로 商品을 보다 使用함으로서 效用增加에 대하여 制限的인 機會만을 提供해 준다.

代替效果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公演藝術에의 直接 參與는 賃金所得 向上에 依存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藝術分野는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相對的으로 덜 時間集約的인 活動으로 代置된다 하겠다.

#### iv) 公演藝術서비스에 대한 需要

公演藝術에 대한 集計價格과 所得彈力度를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一般的인 需要關係가 定式化되어야 한다.

一般的으로 주어진 기호하에서 需要는 相對價格과 所得水準의 函數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表現할 수 있다.

$$\frac{Q_t}{POP_t} = f(P_{At}, P_{st}, Y_t, D_t)$$

여기서  $Q_t$ = $t$ 期當 公演藝術觀客數

POP=人口

$P_A$ =平均入場料

$P_s$ =代替活動의 平均價格

$Y_t$ =1人當 가처분 所得

$D$ =所得分配

第1次 偏導函數로 부터 다음과 같은 부호를 기대할 수 있다. 藝術이 非劣等財로서  $A=(Q/POP)$  라고 하면  $dA/dp_A < 0$ ,  $dA/dp_s > 0$ ,  $dA/dY > 0$ ,  $dA/dD > 0$

#### IV. 公演藝術産業의 構造, 行動 및 成果

앞에서 藝術團體와 消費者 즉, 公演藝術의 供給者 需要者의 特性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需要와 供給이 作用하는 産業의 特性을 産業組織論의 分析 技法을 利用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産業의 特性은 3가지 需要<sup>2)</sup> 즉, 構造, 行動 및 成果下에서 各各 說明된다.

構造라 함은 한 産業內의 企業의 行動에 影響을 주는 그리고 이 行動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市場에 관한 重要的 經濟的 特色을 가르킨다.

行動은 企業의 行態를 記述하는 것으로 特히 다른 産業과의 競爭關係를 나타낸다. 市長成果라 함은 한 産業이 어느 程度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였으며, 同時에 社會 全體的인 面에서 經濟的 目的에 기여하였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 1. 構 造

市場構造에 관한 分析에서 가장 重要的 關心事는 한 産業內에서 야기되는 獨占力의 程度 여부에 있다. 따라서 보다 競爭狀況에서 期待되는 成果 패턴의 相異性을 낳게 된다. 主要 關心事는 적절한 構造 條件下에서 價格의 談合이나 獨占化 許用 여부에 맞추어 진다.

公演藝術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關心方向은 어느정도 減少된다. 비영리조직인 경우 비영리 目的의 추구에서 談合이나 協助의 可能性은 있으나 獨占利潤을 추구하려는 企業의 動機는 줄어든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公演藝術에 있어 構造에서 흔히 다루고 있는 要素들은 重要的한데 이는 市場 行動이나 成果의 다른 特徵들에 影響을 미치거나 相互作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構造의 特色을 詳述하고자 한다. 3가지 基本的인 靜態의 特色으로 製品異質化, 進入障壁 그리고 集中정도와 함께 두가지 動學的인 要素인 需要의 增加와 技術變化에 關係된 것으로 차례로 言及하고자 한다. 特히 技術에 관한 內容은 章을 달리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註20) F. M. Scherer, *Industrial Market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2nd ed, Chicago, Rand Mc 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80., p. 4.

製品異質化

公演藝術은 藝術形態, 公演物의 質, 公演物의 地理的位置, 聯關된 시설물등에 의하여 消費者의 觀點에서 差別化 내지 異質的으로 나타난다. 公演藝術物은 每 公演 똑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自體製品異質化의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藝術作品의 감상에 있어서 後天的으로 얻어지는 기호나, 기술은 公演藝術에 대한 需要의 大部分에 대한 基本이 되고 친구들과의 접촉이나 言論매체의 論評등이 상당한 情報를 제공시키고 있기 때문에 製品의 差別化 現像은 消費者의 情報 選擇에 依存케 된다.

두번째 市場構造의 要素로는 進入障壁으로 이는 現在 生産者의 잠재적 進入者에 대한 費用上의 利點을 가리킨다. 生産과 販賣上의 規模의 經濟性은 大部分의 産業에 있어서 이러한 進入障壁의 主要 要因으로 作用된다. 公演藝術에 있어서는 生産面에 있어서의 經濟性이 보다 有意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廣告에 따른 製品異質化 程度는 어느程度 制限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公演藝術産業의 많은 경우 單位費用은 固定費用의 擴散, 보다 專門化되고 상근고용勞動의 利用, 보다 큰 設施, 등을 通하여 公演物數와 함께 低下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初期의 많은 固定된 物的, 人的 資本이 要求되는 藝術分野도 있다. 즉, 교향악단, 그랜드 오페라團, 고전발레團의 경우에 해당된다. 公演物의 變化에 따라 극히 制限的인 경우를 除外하고는 이는 不可分性의 問題이며 公演物은 어떤 技術的으로 定義된 投入物 水準에서만 競爭이 可能하다.

運營上의 最少效率規模(MES)가 市場크기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큰 경우 例를들어 中小都市 規模에 있어서 교향악단에 있어서는 相當한 費用上의 不利點이 存在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相當한 進入障壁이 있게 마련이며 기존 公演團體는 새로운 競爭者의 進入에 별로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다.

進入을 저해시키는 또 다른 形態로는 絶對的 費用 장벽을 들 수 있다. 이는 새로운 公演團體의 公演物에 따른 製作費用이 매우 클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公演團體에 있어서는 몇가지 點에서 그 重要性을 갖는다. 作品의 저작권이나 독점권 協約등은 作品에 따라 獨占化를 招來시키며 새로운 團體는 이에 代替되는 作品을 획득하기 위하여 많은 費用을 支出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어떤 團體는 그 供給量이 制限된 專門化된 投入物을 통제하기도 한다. 즉, 탁월한 才能을 지닌 연주자를 전속 고용인으로 계약하고 있는 경우 이는 絶對的인 費用上의 利點을 갖게 된다. 例를 들어 새로운 오페라團이 Pavalotti를 고용할 수 없다거나 競爭을 위하여

Pavalotti 에 準하는 歌手를 구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藝術團體의 가장 重要한 費用 利益은 藝術에 대한 支援策의 運營에 있다는 點이다. 例를 들어 一定한 藝術支援金下에서 各 公演藝術分野에 속한 한 두 主要한 團體를 격려하거나 유지시키고자 資金을 支援하는 경우 다른 公演團體는 相對的으로 不利益을 받게 된다. 一部 主要 公演團體以外의 團體에도 支援이 있는 경우 한 團體가 財政的 支援를 받기 前에 相當한 實績이나 成果를 보여야 한다면 進入장벽은 계속 存在하게 된다. 그러한 條件下에 있어서는 새로운 公演團體는 그들의 公演物을 새롭게 하고 觀客을 유치하기 위한 試圖에서 오는 不利性을 감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公式的인 支援金없이 해야하는 문제도 함께 지니게 된다. 이 두 同時 또는 結合效果는 實質的으로 産業內의 進入장벽을 높이게 된다.

흔히 製品差別化도 進入장벽에 포함되는데 製品差別化는 價格差異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點에서 構造의 獨占的인 要素일 뿐만 아니라 消費者의 습관이나 기존의 명성 때문에 갖게된 利點으로 새로운 團體에 대한 進入장벽으로 作用하게 된다. 그러나 公演에 관한 批評이 언론 매체를 通하여 잘 전달될 수 있는 市場에 있어서는 기존 단체의 이와같은 利點은 制限的이 되며 革新과 實險이 존중되는 市場에서는 不利하게 作用될 것이다.

販賣者集中度는 흔히 한 市場의 가장 重要한 構造의面으로 認識될 뿐만 아니라 어느 特定 市場에 대한 企業間의 全般的인 相互作用을 나타내거나 競爭의 環境에 관한 指數를 나타내는데 쓰여진다. 規模面에서 큰 하나 또는 2以上의 企業의 活動比率이 흔히 集中度를 나타내는 指標가 된다. 市場定義에 따라 集中度는 달라질 수 있는데 個個 地域 中心地에 있어서는 集中度는 높지만 集計하는 경우에는 낮아지게 된다. 地方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회公演團이나 外國 團體의 公演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地理的 支配에서 오는 役割은 減少되게 된다. 藝術形態에 따라서도 集中度는 달라지는데 연극에 比하여 그랜드 오페라나 古典발레에 대하여 MES가 커지게 된다. 集中度에 대한 規模의 經濟性은 需要 要因에 의하여 더욱 加重된다. 例를 들어 多樣性이나 革新에 대한 需要는 古典的 藝術形態에 比하여 연극에 있어서 더욱 강하며 따라서 고전음악, 오페라 또는 古典的 발레에 比하여 연극의 경우에 있어서 集中度는 낮아지게 된다.

## 2. 行 動

公演藝術에 있어서 産業行動의 性格과 다른 市場의 特性과의 相互關係는 公演藝術産業에 있어서 비영리단체가 支配的이라는 點에서 區分된다.

앞에서 藝術産業의 주요 目標로 많은 觀客과 水準높은 公演의 重要性을 言及하였으며 이는 다른 産業의 利潤極大化 基準과 比較된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볼때 비영리성의 目標은 談合 내지 協助의 行動으로 나타나며 이는 藝術 그 自體의 發展에 그 比重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個個 團體의 收入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公演藝術의 경우에 있어서 協助는 非營利性에 대한 것이며 價格決定 行動은 利潤極大水準이나 잠재적 進入者의 參與를 자극하는 범위에서 產出物의 質이나 回數를 增加시키기 위하여 서다.

製品異質化 現象을 고려할 때 여기에는 相當히 價格上의 多樣化가 있게되며 價格競爭은 制限되며 需要의 增加를 招來할 수가 있다.

따라서 競爭은 公演 自體의 性格이나 質에 두고서 生産物 自體에 있게 된다. 製品異質化는 대부분 공연물에 정통한 소비자의 選擇에 의존하기 때문에 廣告활동은 制限的인 性格을 지니게 된다. 公益광고는 한 作品에 대한 參與를 誘因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觀客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公演團體의 管理經營은 一般的으로 特定 희곡, 발레, 연주회, 오페라 공연자의 水準, 연출등에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다. 價格策定은 補助金後의 費用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이루어지며 그 以上の 증대는 消費者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sup>21)</sup> 레피토리아 公演物 特性은 豫算條件에 依存하게 된다.

따라서 集中度나 높은 進入障壁은 談合의 結果 얻어지는 높은 利潤때문이 아니라 公演物의 競爭이 없다는데 있다고 하겠다.

프로그램의 준비나 간단한 輕飲料등의 販賣등은 대부분은 소규모 公演團體의 收入源이 되고 있다. 公演物의 內容에 따라 달라지지만 오늘날 流行하고 있는 劇場式 食堂(Theatre-restaurant) 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sup>22)</sup>

註21) 특히 公演物의 質의 向上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質의 內容과 價格間의 關係는 A. O. Hirschman, *Voice, Exit and Loyalty*, Harvard Univ. press, 1972. 을 참조할것.

註22)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 경제적 근거는 여가비용의 상승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의 증대와 時間 費用의 증대는 同時的 消費를 통한 消費의 加速化에 있다. S. Linder는 時間을 빼앗긴 企業家의 모습에서 즉 식사후, 브라질커피를 마시며, 화려한 담배를 피우며, 프랑세 꼬냑을 마시며, N. Y Times를 읽으며,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들으며, 그의 스웨덴부인을 즐겁게 하고 있는 이 모든것을 동시에 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

S. Linder, 전게서, p. 79.

그렇지만 公演藝術產業의 全般的인 展望은 勞動과 物的 費用의 上昇程度와 藝術에 대한 需要에 달려있다 하겠다.

### 3. 成 果

市場成果는 效率性, 收益性 및 技術的 進歩에 관계된다. 效率性은 主로 配分的 效率性을 가르킨다. 이는 적정資源이 적절하게 使用되고 있는가를 가르키는 概念이다. 資源配分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指標의 하나로 資本에 대한 正常收益率을 들 수 있다. 正常보다 높은 利潤이 매우 위험한 또는 우연히 發生된 것이 아닐때 이는 대부분 獨占상태에서 빚어진다.

非營利性에서 야기되는 產業의 效率性의 差異는 管理上의 質的 差異에서 연유되며 이는 技術的 效率性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管理面에서 볼때 公演藝術에 參加하고 있다는 心理的 보상이 有能한 管理者를 公演產業에 誘因하게 될 것이다. 技術進歩와 收益性에 관한 成長은 章을 달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V. 公演產業의 財政的 침체성

앞에서 言及한 靜態的 構造 特色에 이어 이제 長期에 걸쳐 變化되는 藝術產業의 環境에 대하여 需要의 增加問題와 技術變化에 따른 特徵을 살펴보기로 한다.

一般의 으로 需要는 相對的으로 價格에 關係 非彈力的이며 이것은 團體間의 價格 競爭의 정도가 制限的임을 뜻하게 된다. 또한 앞에서 言及하였듯이 人口의 增加, 社會全體의 所得의 增加, 그리고 여가시간의 增大는 公演藝術과 같은 사치재적 性格의 기호에 이롭게 作用하지만 여가의 實際價格의 上昇은 豫想되는 需要增加를 상쇄하게 된다. 만일 이 두 效果의 結果가 需要의 增加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企業은 市場占有를 위한 價格이나 質的面에서의 競爭을 할 必要性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賣出의 增大는 競爭者의 絶對的 費用下에서 可能하며 이는 相對方으로 부터 보복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需要의 變化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이 產業이 長期에 걸쳐 사양產業이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sup>23)</sup> 이러한 點에서 需要의 變化에 關하여 이야기할 때 公演藝術의 經濟的 展望에 關한 重要한 시사점을 提供해 주는 것이다.

註 23) R. E. Caves, *American Industry: Structure, Conduct, Performanc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3rd ed., 1972, pp. 30-31.

長期 經濟的 展望에 대한 이와같은 關心은 技術變化가 미치는 役割에 대하여 適用된다. 公演藝術에 있어서 技術의 役割은 特히 그 뜻을 지니고 있다.

公演藝術에 있어서 技術의 役割에 관한 關心은 처음 Baumol과 Bowen에 의하여 展開되었다.<sup>24)</sup> Baumol과 Bowen에 의하면 公演藝術團體가 當面하게 되는 財政的 어려움은 產業部門間의 不均衡成長에 基因한다고 說明하고 있다. 즉, 不均衡의 一部는 公演藝術產業의 生産性的 增加가 制限되는데 있다.

藝術分野에 있어서는 勞動 그 自體가 本質的으로 最終 產出物이며 따라서 勞動生産性を 增加시키기 위한 보다 많은, 보다 나은 資本에 대한 機會가 製造業등과 같은 다른 產業에 比하여 制限的이다.<sup>25)</sup> 公演藝術에서 古典의 公演物에 대한 需要가 높아질수록 더욱 이 問題는 惡化된다. 이 問題는 費用을 節減시키는데 있어서 새로운 보다 적은 勞動集約的인 藝術形態가 採擇될 수 있는가에 따라 抑制될 수 있다. 生産性的 증가에 따라 製造業 部門의 賃금이 上昇됨에 따라 藝術產業分野의 賃금도 上昇壓力을 받게된다. 同時에 製作費用의 上昇은 費用압박을 招來하여 公演藝術業은 財政難을 加重시키게 되며 結局 時間이 흐름에 따라 公演藝術產業은 必然的으로 財政的으로 침체성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와같은 公演藝術에 대한 우울한 展望의 範圍는 몇가지 事項에 따라 달라진다. 그 하나는 單位費用의 증가정도는 소득과 여가의 증대로 인한 소비자의 支出이 藝術分野로 전환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다.

두번째 要素로는 藝術團體 努力으로 收入의 增大를 가져올 수 있는 可能性 여부에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可能性은 一般的으로 Baumol-Bowen假說의 基本的인 추세를 역전시키기란 어렵다고 하겠다.

현재의 연극, 오페라, 발레 또는 뮤지컬등의 公演에 있어서 生産性的 증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分明히 어려운 일이다. Hamlet에서 몇몇 등장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연극을 공연할 수도, 또는 Aida나 합창교향악에서 합창단의 數를 半으로 줄여, 공연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전혀 다른 意味에서 可能한 일이며 需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보다 적은 勞動集約的인 形態로 代替可能할 수도 있다. 즉, 小規模 오페라나 小規模 편성 관현악단의 경우,

註24) W. Baumol and W. G. Bowen,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1966.

註25) 생산성으로 볼때 1929~1961期間中 物的 産業은 2.5%, 서어비스 産業은 1.6%, 1945~1961期間中에는 物的 産業이 3.1% 서어비스 産業은 1.7%로 이 두 産業의 갭은 擴大되고 있다.

Harvard Business School, 전계서, p. 33.

새로운 作曲이나 희곡을 생각할 수도 있으며 즉, 한 2名의 주인공으로 족한 作品이나 小規模 앙상블(ensemble) 作品이 이에 해당하나 이는 需要層의 擴大에는 그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같은 技術的 變化가 公演藝術産業의 財政難을 경감시킬 수 있을지는 不分明하다. 公演藝術內에서 적응가능성은 증대되는 費用上의 不利益을 어느정도 弱화시킬 수는 있겠으나 이 現象 自體를 변경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部分的으로 이미 무대에 올려졌던 作品들이 다시 公演되는 이른바 “재탕공연”일 경우 기존 무대장치를 再使用하는등 製作費부담을 줄이거나 再公演의 경우 흥행실패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利點을 지니고는 있으나 短期的인 이와같은 方法은 결국 長期的인 면에서 볼때 觀客의 選擇의 폭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나 消費者의 기호의 變化를 招來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낳게 된다.

直接 무대에서 公演하는 藝術에서 活動水準에 關係된 것으로 生연주에 대한 需要에 대한 放送매체의 公演可能性的 效果이다. 따라서 放送매체는 그 自體 需要를 直接 減少시키는데 왜냐하면 많은 시청자에 대하여 한번만의 直接 출연만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消費者등이 TV 공연에 얼마만큼 만족하는가에 따라 生연주 수요에 대한 回數도 영향을 받게되며 消費패턴도 轉位하게 된다.

#### 不均衡成長模型과 公演藝術

公演藝術産業의 經濟的 位置에 관한 Baumol과 Bowen分析의 重要性은 위에서 言及하였다. 여기서서는 이들 分析을 보다 定式化하고자 한다.

몇가지 假定을 세우면

(a) 生産活動을 두 部門, 藝術과 製造業으로 分離하고 藝術業(1部門)은 勞動生産性이 不變이며 製造業(2部門)은 勞動生産性이 9%씩 增加

(b) 두 部門의 單位 賃金은 製造業의 勞動生産性 水準에서 同一

(c) 勞動費用以下の 모든 支出은 無視

(d) 規模에 대한 報酬不變

그러면 關係된 生産體制는  $i$ 部門과  $t$ 時點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生産 및 賃金 方程式을 수립할 수 있다.



$$Q_{1t} = aL_{1t}$$

$$Q_{2t} = b(1+g)^t L_{2t}$$

$$r = r_0(1+g)^t$$

여기서 Q = 產出量

L = 勞動投入量

r = 賃金

g = 勞動生産性的 增加率

이 體制의 關係된 屬性은 다음과 같다.

第1屬性: 藝術産業에 있어서 產出物 1單位當 費用은 無制限 增加하는 反面 製造業의 경우 一定하다.

(증명)

$$C_{1t} = r_t L_{1t} / Q_{1t} = r_0(1+g)^t / a$$

$$C_{2t} = r_t L_{2t} / Q_{2t} = r_1 / b$$

여기서 C는 生産物 1單位當 勞動費用

第2屬性: 需要의 彈力性이 1이라고 할때 藝術産業의 產出物은 時間이 흐름에 따라 需에 接近한다.

(증명)

$$\frac{C_{1t} Q_{1t}}{C_{2t} Q_{2t}} = \frac{r_t L_{1t}}{r_t L_{2t}} = A (\text{一定})$$

따라서 產出物 比率은

$$Q_{1t} / Q_{2t} = aL_{1t} / bL_{2t}(1+g)^t$$

$$= aA / b(1+g)^t$$

$$t \rightarrow \infty \Rightarrow \infty$$

第3屬性: 만일 政策的으로 또는 需要의 彈力性에 따라 固定產出物 比率이 存在하게 되면 製造業의 勞動은 需에 接近한다.

(증명)

$$Q_{1t} / Q_{2t} = aL_{1t} / bL_{2t}(1+g)^t = K$$

$$L_{1t} / L_{2t} = K(1+g)^t \quad t \rightarrow \infty \Rightarrow \infty$$

$$L_{2t} / L_{1t} \quad t \rightarrow \infty \Rightarrow 0$$

이와같은 결과는 賃金の非同一性, 非規模의 報酬不變, 多量生産要素등에 관한 假定을 다루기 위하여서는 修正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Baumol과 Bowen에 의하면 이 결과들은 代表性을 나타내며 특히 第2屬性은 公演藝術의 實際的 經濟的面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왜냐하면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公演藝術團體의 財政的 압박은 만성적으로 增加될 수 밖에 없음을 強調하고 있다.<sup>26)</sup>

## VI. 結 論

오늘날 世界 主要 公演藝術團體들은 過去와는 달리 財政的 압박이나 經營上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高度의 現代技術社會에 있어서는 固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믿어진다.

本 研究에서는 이같은 現象이 나타나게 되는 公演藝術産業의 特徵과 問題點을 需要, 供給側 特性和 함께 産業組織側面에서 즉 構造, 行動 및 成果를 中心으로 살펴 보았다.

公演藝術은 本質的으로 觀客 또는 청중과 公演者가 무대를 통하여 함께 存在하고 있다는 同時性에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公演藝術産業이 갖는 特性을 產出物, 投入物, 費用, 收入, 目的等으로 나누어 기술하면서 이로 부터 이 産業의 生産函數, 費用函數, 需要 및 收入函數를 設定함으로서 公演藝術團體의 效用函數를 定式化하였다.

한편 公演藝術에 대한 消費者의 需要는 이 産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最近에 있어 公演物의 製作費用이 增大되고 觀客數가 相對的으로 減少됨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古典音樂에 局限하여 이야기해 볼 때 청중수의 減少現象은 기존 古전음악의 연주曲目的 制限性, 固定된 形式의 管현악단에 比하여 自由스러운 大衆音樂에 친숙한 젊은 世代의 吸收失敗, 現代音樂이나 現代作曲家들이 새로운 音樂을 創造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起因될 수 있다. 또한 現代 生活의 복잡성도 原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公演藝術에 대한 需要는 所得과 여가간의 選擇問題로 定式化하였다.

公演藝術團體가 直面케 되는 財政的 어려움은 産業間의 不均衡成長에 基因된다 할 수 있다. 高度의 技術指向의 社會에 있어서 公演藝術産業은 技術的으로 停滯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生産物이 投入된 勞動의 價値 그 自體가 重要視되기 때문에 많은 資本量이 生産性을

註26) W. J. Baumol and W. G. Bowen, On the performing Arts: the anatomy of their economic problem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May, 1965, pp. 499-501.

增加시킬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이는 勞動者들의 生産性을 增加시키기 위하여 많은 資本이 蓄積되는 技術指向的인 製造業部門等과는 區分된다. 1900年 8月 15日 베토벤의 장엄미사를 연주한 보스턴 교향악단을 例로 든다면 이 교향악단은 지난 90年間 거의 技術進歩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이 장엄미사를 연주하는데 있어서 과거와 同一한 勞動時間의 연습시간이 所要되기 때문이다.

현재 韓國의 경우 大部分의 文化藝術 特히 公演藝術團體는 政府의 支援下에 있으며 經濟的 規模와는 달리 아직 순수한 예술 次元의 民間團體는 量的으로 적으며 公演藝術에 대한 企業이나 個人의 補助나 投資는 극히 미미한 實情에 있다.

藝術은 社會의 복지나 人間의 幸福, 삶의 質을 높이며 創造力도 提高시킨다.

公演藝術產業이 持續적으로 활발하게 成長하기 위하여서는 最小限 다음 4가지가 充足되어야 한다. 公演團體의 財政的 健全, 組織 및 管理의 向上, 專門藝術家의 훈련, 藝術감상력의 提高등이다.

公演藝術團體의 존속이나 成長을 위하여서는 現在의 政府의 支援은 더욱 계속, 擴大되어야 한다. 個人, 企業들의 公演藝術에 대한 認識과 함께 支援은 必須的이며 이를 위한 稅制上的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1981年 12月31日의 조세감면규제법은 文藝藝術振興基金으로 출연되는 金額에 대해서는 당해과세연도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 損費산입을 認定하고 文化藝術에 대한 投資의 길을 터 놓은 후 基金이 增加하고 있음을 볼때 이의 活性化가 더욱 시급하다 하겠다.

組織과 管理의 改善, 專門藝術家의 훈련에 있어서는 公演藝術關聯團體에 대한 稅制上的 혜택이 직접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美國의 경우 公演藝術家의 平均所得이 一般勞動者의 水準에 半程度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點을 留意하여 우리의 경우 所得격차가 發生되지 않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公演藝術의 經濟的 위기는 所得과 여가時間의 증가에 따라 어느정도 完化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公演藝術이 正의 外部性을 創出한다고 볼 때 公演藝術에의 參與와 質的 向上을 위한 藝術政策이 講究되어야 한다. 이는 公共大衆의 參與意識, 傳承, 教育을 통하여 可能하며 特히 長期的인 藝術教育의 擴大와 끊임없는 關係유지가 必要하다.

参 考 文 獻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경제, 1987.

Baumol, W. J. and W. G. Bowen, On the performing arts: the anatomy of their economic problem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May, 1965.

Baumol, W.J. and W. G. Bowen,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1966.

Becker, G. S.,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Sept., 1965.

Becker, G. S.,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Univ of Chicago, 1976.

Bronfenbrenner, M, On the Performing arts: Discus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5.

Caves, R. E., *American industry: Structure, Conduct, Performa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3rd ed., 1972.

Chenery, H. etc., *Redistribution with growth*, London: Oxford Univ. Press, 1974.

Fromm, E., *The art of loving*, New York: Haper & Row, 1963.

Gassler, *The economics of non-profit enterprise*, New York: Univ Press of America, 1986.

Gapinski, J. H., The economics of Performing Shakespeare,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84.

Harvard Business School, *The Boston Symphony Orchestra*, 1975.

Hilton, A., The economics of the theatre, *Lloyds Bank Review*, July, 1971.

Hirshleifer, J, The Expanding Domain of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85  
(Supple.)

Hirshman, A. O., *Voice, Exit and Loyalty*, Harvard Univ. Press, 1970.

Krutilla, J. V., Conservation reconsidered,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67.

Langley, *Theater management in America*, New York: Drama book Publishers, 1980.

Linder, S. B., *The harried leisure clas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0.

Mishan, E. J., *Cost-Benefit analysi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6.

- Robinson, J.,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A belated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69.
- Scherer, F. M. *Industrial Market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2nd ed.,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80.
- Schwartz, R. A., Personal Philanthropic Contribu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Nov./Dec., 1970.
- Scitovsky, T., Arts in the affluent Society: What's wrong with the arts is what's wrong with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2.
- Stigler, J., Economics-The imperial scienc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No. 3, 1984.
- Throsby, C. D and G. A. Withers, *The Economics of the Performing Arts*, Victoria, Australia: Edward Arnold Pty Ltd., 1979.
- Weinstein, A. A. Transitivity of Preference: A Comparison Among age group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Mar./Apr., 1968.
- West, E. G., The Economics of Performing Shakespeare: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85.

